

무안군 인구 증가율 전국 군 단위 1위

2024년 기준 전년대비 2.65% 증가
출생아 수 547명으로 16% 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 성과

무안군이 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안'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해 주목받고 있다.

무안군은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보건정책을 강화해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무안군 인구는 9만2687명으로 전년도보다 2391명이 늘어 증가율 2.65%를 기록하며 군 단위 지자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인구는 9만5263명으로 집계돼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같은 해 출생아 수는 547명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유입이 활발한 남악·오룡지구의 영향이 컸다.

군은 올해 총 3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 모자보건사업 25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남·녀 각 4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여성 최대 13만원·남성 최대 5만원, 주기별 3회) 지원이 이뤄지며 임신 등록 시 산전검사·초음파·기형아 검진비·철분제·엽산제 등이 제공된다.

"맘편한 임신 태백 서비스"를 통한 물품 배송도 이어진다. 고위험 임신부에게는 비급여 의료비 90%가, 청소년 산모에게도 임신·출산 의료비가 지원된다.

난임 부부 지원은 정부형과 전남형 이중 체계로 운영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정부형 지원이 가능하며 초과 시 전남형 지원



무안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린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 교실에 참여한 부모들이 아기와 함께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으로 신선패아 최대 150만원, 동결패아 7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횡수 제한은 없다.

2025년부터는 난임 원거리 교통비 지원도 시작돼 왕복 3만원씩 연 10회까지 지급된다. 난자 냉동(최대 200만원), 정관·난관 복원술(최대 100만원), 한방 난임치료 및 사후관리 지원도 포함됐다.

출산 가정에는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가 주어지고, 출산축하용품 4종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아 이상 가정에는 50만원의 육아용품 구입비가 추가 지원된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2000만원이 분할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며

아동수당은 만 0-8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에는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가 월 9만원씩 지원된다. 전남도와 협력해 출생 후 만 19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 기본수당도 지급한다.

신도시인 남악·오룡지구에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육식·태교·베이비 마사지·오감발달 교실을 운영하며, 2025년 하반기에는 임신부 운동교실·출산준비교실·영아 운동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출산과 양육이 부모의 몫으로만 남지 않도록 군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백수읍 대신지구 농업용수 확보키로

40억원 들여 지표수 보강 추진

영광군이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백수읍 대신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백수읍 대신지구(들녘)는 매년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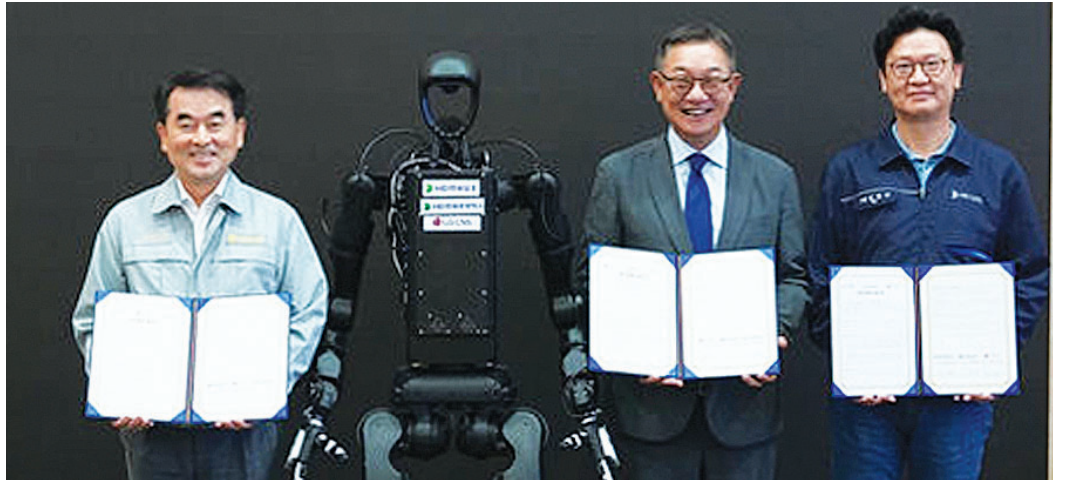
이에 영광군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국비 28억원 포함)을 투입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구축한다.

주요 시설로는 저류지 3곳, 양수장 3곳, 총연장 3.8km 송수관로, 가동보 1곳 등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51ha에 이르는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영광군은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사업 시행계획 승인 절차만 거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후 변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형원 기자 kcw@kwangju.co.kr



HD현대삼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속도 낸다

물류 자동화 기술 개발 업무협약

HD현대삼호가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류 자동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HD현대삼호에 따르면 15일 회사 VIP홍보관에서 HD현대삼호 김재을 대표, LG CNS 현신균 대표, HD현대로보틱스 김완수 대표를 비롯해 HD한 국조선해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공정 운영 및 효율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및 물류자동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용접 외 측정·성형·관제 등 다양한 생산 활동에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개발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개발을 통한 조선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HD현대삼호는 제조 데이터 확보와 현장 인프라 조성을, LG CNS는 조선 산업용 AI 및 데이터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맡고, HD현대로보틱스는 공정별 특화 AI 모션 제어 기술을 개발·제공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로봇, 시뮬레이션, 용접 등 다양한 제조 기술을 개발·지원한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자동화 설비 및 협동로봇의 한계를 넘어 복잡한 용접·조립·이장 및 검사 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생산성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목포 고하도 어촌뉴딜사업 주거피해 논란...“도로 높여 1m 난간 생겨”

“집에 들어가려면 뛰어내려야”

집주인 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목포시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 선착장 정비사업) 과정에서 한 주민이 주거피해를 호소하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하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1년 착공해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현재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123억원이 투입돼 공동사업 1개, 특화사업 5개, 소프트웨어 사업 1개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주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A 씨는 “원래 우리 집과 도로는 같은 높이여서 드나드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 하지만 목포시가 도로를 1m나 높여버려 집 앞에 언덕이 생겼다”라며 “지금은 집에 들어가려면 도로에서 뛰어내리거나 물건을 쌓아 발판 삼아 기어올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사진>



특히 A씨는 허리 증증장애가 있어 출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는 “장애가 있는 내가 어떻게 그 방법으로 드나들 수 있겠느냐”라며 “사람이 사는 집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집 대지 면적(269㎡)을 고려해

1억37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했다. 손해액 상정과 관련 같은 공사 과정에서 인근 토지(65.7㎡)를 ㎡당 51만원 보상하며 도로 확장을 진행한 것을 근거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은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했고, 주거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생활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우선 손해배상금 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청구했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추후 감정을 통해 산정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로와 집 사이에 1m 높이의 난간이 생겨 언제든 추락사고가 날 수 있다”라며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집이 수용소처럼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막바지 단계라 배상금 지급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주인 불편 해소를 위해 계단 설치 등 보완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 시니어 의사 채용 의료 공백 해소 기대

진도군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전남 지역 최초로 시니어 의사 1명(신경외과 전문의)을 신규 채용했다.

‘시니어 의사’란 은퇴 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경력 있는 의사다. 이번 채용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의사 인력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의사 활용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니어 의사 채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공중보건과가 부족한 상황 속

에서 시니어 의사가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니어 의사는 보건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진료와 상담을 맡을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시니어 의사의 숙련된 경험과 역량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환자 진료,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등에서 군민들이 더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100주년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